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6호 [무계 제25489호] 주제 105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박정천 동지, 조선인민군 제11군단장인 육군소장 김영복 동지가 맞이하였다.



란이 작렬하는 속에 적 폐당들은 모조리 사살한 전투원들은 심판대에 꿰어앉힌 악당들을 생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어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화려호출을 받은 전선장거리포병들이 적의 소굴을 완전히 추방쳐버리는 일제사격을 가했으며 멸적의 포탄들은 특정대상물을 사정없이 두들겨쳤다.

타래처럼 오르는 화염과 연기기둥으로 하여 적의 소굴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연평도의 불바다를 기어이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피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넣을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원수격멸의 루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날, 천날을 밤에 젖어 위훈의 날과 달로 이어오며 부대를 멸적의 전투태도로 강화시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인원 및 기재들의 동원준비상태와 훈련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훈련은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드디어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남조선피폐역도들의 몸통아리를 천조각, 만조각으로 찢어발기고야말 일당백전투원들의 천백배 부수전이 시작되었다.

전투원들은 적의 대상물을 둘러싸고있는 높은 산고지들에서 활공락하산을 타고 날새마냥 소리없이, 눈깜박할 사이에

침투하여 외부경비력방소멸을 위한 파감한 전투행동을 진행하였다.

불시에 날아든 직승기들에서 바들강하로 줄지어 쏟아져내린 전투원들이 저항하는 적들을 여러가지 전투행동조합으로 쓸어버리며 대상물로 벼락같이 돌입하였다.

뒤이어 경수송기들에서 용감하게 활출하여 적대상물에 직접 착지한 전투원들도 적들에게

몰사격을 들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용맹한 전투원들이 적의 특정대상물을 총횡무진 짓이겨대며 말겨진 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잘하오, 잘하오 하시며 호랑이같이 웃으시였다.

공분뭉치 울리는 총성과 수류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특수작전부대의 전투원들이 남반부를 활무대로 삼고 파감한 전투행동을 벌리자면 행군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자연계선극복훈련과 야전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하여 유격전의 능수들로 든든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된 훈련을 통해서도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2017년에도 훈련혁명의 불길, 군력강화의 불바람속에 전투정치훈련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혁명장군의 전투력을 무진막강하게 다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 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목동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리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한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군명도의 빛나는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언제든 명령만 내리신다면 단숨에 피뢰를 쓸어버리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믿음직하게 열어드릴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 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 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자나깨나 그럴듯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면서 사회주의 농업근로자들의 뜻깊은 대회합을 마련해주시고 조선 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었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 농촌건설사상과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총정과 애국의 한 마음으로 조국의 전야에 순결한 피와 땀을 묻으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농업근로자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업무를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 농업근로자동맹을 참다운 수령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삼지연군에 모신 김정일명도자의 동상에 참가인사를 드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문화회관을 찾으시어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회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당에서 보내주시겠다는 온정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삼지연학생소년궁원을 현지지도하시고 궁전의 인공관, 교직원들, 소조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스키선수들의 훈련을 보시며 스키는 체력단련에도 좋고 대량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 전바물관으로 꾸미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중국의 신화통신, 미국의 UPI통신,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제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리네트홈페이지, 도이쉴랜드만제연단 인리네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인리네트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델 카스트로 주석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주재 쿠바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조의를 표시하신 소식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정예대로 자라난 조선인민군 제380대원함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 투히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부대장병들이 이룩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로씨야의 데베-로스통신, 중국의 홍콩 종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립》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제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리네트홈페이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백두산제3호조선전선협회 인리네트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의 결성식이 5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주제사상연구협회, 기자, 문화인들의 《주체의 태양》김정일주의연구협회, 마리아 우폴시 선군정치연구회를 비롯한 주제사상연구조직들의 인사들과 군중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주제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니콜라이 볼리슈크가 선출되었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모든 조직들에서 회고위원회를 내오며 질서위원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결성식이 5일 로씨야의 안크트-베데르부르그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전로 김일성주의연구보급협회,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의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와짐 푸지민이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 위원장 엘레나 바비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수성을 위한 인류의 투쟁사에서 가장 슬픈 날로 되는 12월 17일이 다가오고있다. 바로 5년전의 이날 위어난 철학가이시고 진정한 인민의 명도자이시며 위대한 동지애의 귀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 우리에게는 김정일시대에 이룩된 모든 전변을 사람들에게 알릴것 의

무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은 그이께서 쌓으신 업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김정은동지는 김정일동지의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결속한 위인이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 만세!

김정일동지회고 베네수엘라전국위원회가 11월 26일 까리카스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주제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베스가, 위원장으로 베네수엘라 통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조장자 펠릭스 헤루스 벨라스케스 카스텔로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